

관계자 인터뷰

- ○○구청

2. 문장 표현상, ㉠과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장은?

[2점]

- ① 아버지는 식탁에서 서재로 옮기고 있다.
- ②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렸다.
- ③ 경찰관이 앞서 가던 차량을 정지시키게 했다.
- ④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절대로 다 읽어야 한다.
- ⑤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3.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점원: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손님: 셔츠를 좀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그러시면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돌려 주세요.

[2점]

- ① ㉠: '-느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2013 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3번
문항코드 : 13-37-30-213

4.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3점]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2013 고3 6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3번
문항코드 : 13-37-60-213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 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2점]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고'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2013 고3 6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4번
문항코드 : 13-37-60-214

6.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2점]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진?’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3번

문항코드 : 13-37-90-213

7.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나?
 - 학 생: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나?
 - 아 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나?
 -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 니: ㉣어쩔 이럴 수 있나?
 - 동 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① 가 | 나 | ② 가 | 다 |
| ③ 나 | 라 | ④ 다 | 라 |
| ⑤ 다 | 라 | | |

[2점]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B형>14번

문항코드 : 13-37-90-314

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들: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2점]

- ①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니’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르’는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시제 표현 파악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B형>15번

문항코드 : 13-38-00-315

9.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니던 영화관이다. /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닌 영화관이다.
ㄴ. 하던 일을 마저 해치우자.
ㄷ. *어머님이 출생하시던 곳은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ㄹ.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 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ㅁ. 즐겁던 그 시절이 그림구나. / 즐거웠던 그 시절이 그림구나.
* : 비문법적임을 표시함.

[2점]

- ① ㄱ으로 보아, ‘-던’과 ‘-니’는 과거의 일에 쓰일 수 있군.
- ② ㄴ으로 보아, ‘-던’은 하다가 중단된 일을 나타낼 수 있군.
- ③ ㄷ으로 보아, ‘-던’은 과거에 완료된 일회성 행위에 쓰일 수 없군.
- ④ ㄹ로 보아, ‘-었던’은 ‘-던’에 비해 일이 완결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군.
- ⑤ ㅁ으로 보아, ‘-었던’은 ‘-던’과는 달리 어떤 기간에 벌어진 일을 나타내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시제 표현 파악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2점]

- ①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에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② ‘그가 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에는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③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에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④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그런데 하나의 문장에서는 이러한 높임 표현이 둘 혹은 세 개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상대 높임의 경우 해요체는 +로, 해체는 -로 표시하면, (ㄱ)과 같은 문장은 (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창호가 형한테 꽃다발을 주었어. (ㄱ)
[-주체], [-객체], [-상대] (ㄴ)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2점]

- ① [-주체], [-객체], [+상대] ② [+주체], [-객체], [+상대]
③ [-주체], [+객체], [-상대] ④ [-주체], [+객체], [+상대]
⑤ [+주체], [+객체], [+상대]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2. 다음은 '시제'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는데,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는 '>', '=',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경우는 '사건시 > 발화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문장의 경우는 어떠한지 부등호 혹은 등호로 표시해 보자.

(1) 내 동생은 지금 바깥에서 공을 찬다. → 사건시 (a) 발화시
(2)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 사건시 (b) 발화시
(3) 우리는 내일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 사건시 (c) 발화시

(a) (b) (c)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점]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시제 표현 파악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려로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높임법 중 객체 높임법은 문장 내에서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높임법이다. 예를 들어 “형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체 ‘형’이 선물을 드리는 행위는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대상을 높이기 위해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객체 높임법은 ㉠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 ㉠ 나는 오랜만에 형님을 뵈었다.
㉡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다.
㉢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 계셨다.
㉣ 철호는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았다.
㉤ 우리는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시기를 기다렸다.

[2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4.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업 게시판>

[질문]
오늘 어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쓰려고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써야 할지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개가 사람을 물었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쓸지 피동문을 쓸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즉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이 물린’ 상황보다는 ‘개’의 행위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자동사 파악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5. 다음은 부정 표현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선생님: 고향에 다녀왔니?
학생: 아니요.
선생님: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거니, 다녀오지 않은 거니?
(나) 어머니: 이 꽃병은 만지지 마라.
아들: 네. 안 만질게요.
(다) 이 옷은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
(라) 소현: 저 영화 보는 거 어때?
철이: 우리 저 영화 보지 않았니?
(마) 영수가 책을 안 샀다.

[2점]

- ① (가):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나): 명령문에는 평서문과 달리 부정 표현으로 ‘아니하다(않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③ (다):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과 관계없는 상태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 ④ (라): 부정 표현을 통해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⑤ (마): 부정의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부정 표현 파악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6. (나)를 고려하여 (가)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영수: 비가 오니 내일 소풍은 다 ㉠갔다.
 소연: 작년 소풍 전날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소풍날에는 비가 안 왔잖아.
 영수: 아, ㉢그랬지. 요새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이럴 때 꼭 소풍을 가야 하는데…….
 소연: 맞아. 그런데 지금 몇 시야? 벌써 아홉 시네.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훈났다.
 (나) 국어사전 검색 결과: ‘-었-/-았-/-였-’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2점]

- ① ㉠: 내일 소풍을 못 가게 될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② ㉡: 소풍 전날에 비가 온 것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③ ㉢: 대화 상대가 말한 내용이 발화시에 와서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④ ㉣: 꽃들이 예쁘게 핀 상태가 발화시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 엄마에게 혼날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시제 표현 파악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7. 다음은 ‘이철수’, ‘김영희’ 부부의 가계도이다. ‘표준 언어 예절’에 근거할 때, ㉠~㉤ 사이의 호칭어 및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은 김영희를 이철수에게 지칭할 때 ‘네 처’라고 하면 된다.
 ② 이철수는 ㉡를 ㉢에게 지칭할 때 ‘아버님’이라고 하면 된다.
 ③ ㉣은 김영희를 ‘올케’라고 부르면 된다.
 ④ 김영희는 ㉢가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⑤ 이철수는 ㉢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 ‘처남’이라고 부르면 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8. ‘표준 언어 예절’에 근거하여 밑줄 친 부분을 고치고 그 이유를 제시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황 및 표현	수정 및 수정 이유
① [친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요즘 <u>춘부장</u> 께서는 건강하신가?”	수정 이유 ‘춘부장’은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이를 때는 ‘선친’이라고 해야 한다.
② [아내가 남편에게] “ <u>아빠</u> , 영수 옷 좀 꺼내 주세요.”	수정 이유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는 ‘여보’라고 하거나 자녀의 이름을 넣어 ‘영수 아빠’ 등이 적절하다.
③ [식당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u>이모</u> ,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수정 이유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에는 ‘여기요’라고 할 수 있다. ‘이모’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④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 영수 가방이 <u>예쁘구나</u> . 학생: 고맙습니다. <u>어머님께서</u> 사 주신 거예요.	수정 이유 편지금을 제외하고는 살아 계신 자기 부모를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는다.
⑤ [관공서에서 직원의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 영수: 아저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수정 이유 관공서에서 직원의 이름이나 직함을 잘 모를 때에는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다.

[2점]

- ① ①
 ③ ③
 ⑤ ⑤
 ② ②
 ④ ④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19. 다음 중, 표준 언어 예절에 맞지 않은 내용은?

영수: 송년 인사나 신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렵지?
진희: 맞아. 송년 인사로 부모님께는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영수: ㉠웃어른께는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적절해.
진희: 그래? “한 해 동안 저희 키워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는 어때?
영수: ㉡웃어른께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아, 또 궁금한 것이 있다. 연말에 친구와 헤어질 때,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새해 인사를 해도 될까?
영수: ㉢정초에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는 물론, 정초에 다시 만날 사람에게도 미리 새해 인사를 할 수 있어.
진희: 그럼,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절 받으세요.”라고 하고 절을 드리는 건 어때?
영수: 그건 명령하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아. ㉣절을 드릴 때는 말없이 그냥 절을 하면 된다고 배웠어.
진희: 웃어른께 절을 드리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해야 돼?
영수: ㉤새해는 절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면 돼.

[2점]

- ①  ② 
③  ④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
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무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무항입니다.

20.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지칭어는 특정 사람을 가리켜 이를 때,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를 때 쓰
는 말이다. 지칭어나 호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
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
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지칭어나 호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3

- ① (동생이 자신의 형의 아내에게) 제수씨는 요즘 하는 일 잘되고 있지요?
- ②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는 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랑 결혼했어?
- ③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제 선친의 회갑 잔치가 있어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 ④ (백화점 점원이 중학생 손님에게) 이 옷은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 ⑤ (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아범은 아무래도 퇴근이 늦을 거라고 하네요.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무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무항입니다.

21. 다음에 제시된 학생의 글과 선생님의 평가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 중 ‘벗겨지다’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책에서 ‘벗겨진 머리’는 잘못된 표현이고 ‘벗어진 머리’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벗겨지다’를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이중 피동’으로 설명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벗겨지다’는 사동사 이간 ‘벗기-’에 통사적인 피동 표현 ‘-이지다’가 결합한 것이지 이중 피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네? 대대해! 네 말대로 '벗겨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니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이중 피동이 아닌 것을 이중 피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해.

[2점]

- ① 방 안이 환히 밝혀졌다.
- ②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다.
- ③ 손잡이가 천천히 돌려졌다.
- ④ 그 일은 오래전에 잊혀졌다.
- ⑤ 그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
사 파악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말 중에는 <u>화자의 입장에서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u>, <u>청자를 의식하여 대상을 높여 주는 표현</u>도 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할머니에게 엄마는 높여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손녀를 의식하여 할머니 는 의도적으로 ‘드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	---

	화자	청자	예문
①	손자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고 있습니다.
②	딸	아버지	망치질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③	학부모	선생님	선생님의 따님은 이제 초등학생이죠?
④	미용사	손님	이제 커트하시겠습니까.
⑤	아들	어머니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높임 표현
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3. <보기>를 참고할 때, 표준 화법에 따라 인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보기

담화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면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인사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부드럽게

해 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인사말을 사용하면 상대

방에게 오히려 결례(缺禮)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점]

- ①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서 제 절 좀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 ② 할아버지의 고희 잔치에서 손자가 할아버지께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③ 회사 동료에게 정년 퇴임을 축하하며 “축하합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라고 말했다.
- ④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후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 ⑤ 모친상을 당한 직장 상사에게 조문을 하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분류: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
의 적절성 평가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문항코드: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4. <보기>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동사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동사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면 된다.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을 사용한다.

㉠ (주동문) 동생이 운다. → (사동문) 형이 동생을 울린다.
 ㉡ (주동문) 동생이 옷을 입는다. → (사동문)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 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
- ②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겠군.
- ③ ㉠은 ㉡과 다른 접미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군.
- ④ 사동문에서는 주동문과 다른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는군.
- ⑤ 주동문의 동작 주체가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
사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피동 표현의 유형이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1	
○피동 표현: 주어가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일을 표현한 것 • 파생적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을 붙이는 경우 • 통사적 피동: 서술어에 ‘-아/어지다’를 붙이는 경우 경우 • 어휘적 피동: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	

- ① $\neg$, $\perp$
② $\neg$, $\Rightarrow$
③ $\perp$, $\sqsubset$
④ $\perp$, $\Rightarrow$
⑤ $\sqsubset$, $\Rightarrow$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
사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1	
---------	--

-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를 높이는 방법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객체 높임법: 서술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를 높이는 방법

	보 기2	
--	---------	--

가. 그녀가 할머니께 모자를 사 드렸다.
 나. 삼촌께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다. 엄마, 숙부께서 할아버지를 뵈자고 하시네요.
 라. 선생님, 이번에는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 [2점]

 - ① ㄱ의 '드르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② ㄴ과 ㄷ의 '꺼서'와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③ ㄷ의 '뵤자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④ ㄷ의 '요'와 ㄹ의 '-십시오'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 ⑤ ㄹ의 '말씀'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낮춘 것이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무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무항입니다.

27. <보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현재의 내 실력으로는 이 수학 문제를 못 풀겠어.
 ㉡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 오늘따라 날씨가 흐려서 달을 보지 못했다.
 ㉣ 서점에 갔는데 아직도 그 책이 안 나왔다.
 ㉤ 오늘은 좀 피곤하니 밖에 나가지 말자.

- [2점]

① ㉠: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할 때 ‘못 부정문’이 쓰이는군.

② ㉡: 어떤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안 난다.’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동일하겠군.

③ ㉢: 동작 주체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낼 때도 ‘못 부정문’이 쓰이는군.

④ ㉤: 동작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안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군.

⑤ ㉥: ‘말다’를 사용하여 편서문을 부정할 수 있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부정 표현 파악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능동문	피동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 다.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 았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

- ①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있군.
- ②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군.

- ②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
- ③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세요.
- ④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말게.
- ⑤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부정 표현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 ‘-대’와 ‘-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민정이는 몸이 아파서 오늘 못 온대.
 ㄴ. 소문에 의하면 동호가 전교 1등이래.
 ㄷ.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영화 참 재미있데.
 ㄹ. 지난 수업 때 보니, 영화는 발표를 참 잘하데.

[2점]

- ① ㄱ에서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볼 수 있겠군.
- ② ㄴ에서 ‘-래’는 ㄱ, ㄷ의 ‘-대’와 같은 의미로 쓰였군.
- ③ ㄷ에서 ‘-대’는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④ ㄷ에서 ‘-대’는 ‘-더라’와 바뀌 쓸 수 있겠군.
- ⑤ ㄹ에서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일러 주는 역할을 하는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2.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포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ㄴ. 토끼 한 마리가 포수에게 잡혔다.
 ㄷ. 아이가 옷을 입었다.
 ㄹ.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2점]

- ① ㄱ은 능동 표현이고, ㄴ은 피동 표현이다.
- ② ㄱ의 주어는 ㄴ에서 부사어로 나타나 있다.
- ③ ㄴ과 ㄹ에서 접미사 ‘-히-’가 결합된 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로 동일하다.
- ④ ㄷ의 ‘입다’의 주체는 ‘아이’이고, ㄹ의 ‘입히다’의 주체는 ‘어머니’이다.
- ⑤ ㄹ의 ‘입히다’는 ㄷ의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것이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3. 다음은 잘못된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고쳐 쓴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목표]
 최근 어법에 맞지 않는 이중 피동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표현들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연습 문제]
 다음의 이중 피동 표현을 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으로 고쳐 쓰는 연습을 해 보자.

㉠ 그 일은 무척 힘들게 보여진다. →
 ㉡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차여졌다. →
 ㉢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밀려지지 않는다. →
 ㉣ 땅에 묻혀진 것은 해적이 남긴 보물이었다. →
 ㉤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진다. →

	예문	고쳐 쓴 결과
①	㉠	그 일은 무척 힘들게 <u>보인다</u> .
②	㉡	작년에 준희는 애인에게 <u>쳐졌다</u> .
③	㉢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u>밀리지</u> 않는다.
④	㉣	땅에 <u>묻힌</u> 것은 해적이 남긴 보물이었다.
⑤	㉤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u>생각된다</u> .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4. 다음 대화의 ㉠~㉤을 언어 예절에 맞추어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 : ㉠오빠,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하러 나가자. 뭘 먹을까?
 남편 : 작년 여름에 갔었던 삼계탕 집 어때, ㉡자기?
 아내 : 삼계탕 좋지! ㉢아버지도 모시고 갈까?
 남편 : 우리 ㉣아버님은 닭고기를 싫어하셔.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는 게 어때?
 아내 : 응, 그럼 시아버님 말고 우리 ㉤아빠 모시고 가자.
 남편 : 그래, 장인어른께 어서 연락드려 봐.

[2점]

- ① ㉠ : 남편에 대한 호칭어는 ‘오빠’가 아니라 ‘여보’를 쓰는 것이 좋다.
- ② ㉡ : 아내에 대한 호칭어는 ‘자기’가 아니라 ‘여보’를 쓰는 것이 좋다.
- ③ ㉢ :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아버님’을 쓰는 것이 좋다.
- ④ ㉣ :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서 지칭할 때에는 ‘아버지’보다 ‘아버님’을 쓰는 것이 좋다.
- ⑤ ㉤ :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친정아버지’를 쓰는 것이 좋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5. 다음 대화 중 언어 예절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은?

[2점]

- ① 손자 :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 그래, 너도 잘 잤니?
- ② 손님 : 이모, 여기 밥 좀 빨리 줘요.
 식당 종업원 : 네, 손님. 지금 나갑니다.
- ③ 며느리 : 어머니, 그이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 : 그래? 따로 연락은 없었고?
- ④ 학생 : (선생님에게 어머니를 소개하며)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 처음 뵙겠습니다. 회재 어미입니다.
 교사 :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 ⑤ 민수 :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꼭 인사드리라고 하셔서요.
 교수 : 그래, 자네 어머니 성함이……?
 민수 : 네, 저희 어머니는 이옥순이십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6. 다음 중 언어 예절에 맞는 인사 표현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전화를 끊을 때 웃으니까 : 그럼 들어가세요.
 ㄴ. 문장을 가서 상주에게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ㄷ. 정년퇴직하는 상주에게 : 벌써 정년이시라니 아쉽습니다.
 ㄹ. 면접을 마친 후 면접관에게 : 면접관님, 수고하십시오.
 ㅁ. 웃으니까 아침 인사를 할 때 : 좋은 아침입니다.

[2점]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ㄴ, ㄹ, ㅁ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7. 다음 중 높임 표현이 올바르게 쓰인 것끼리 묶은 것은?

ㄱ.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고 계신다.
 ㄴ. 할머니께서 노인정에 가려고 하신다.
 ㄷ. 경수가 선생님께 여쭙 뵈 달라고 합니다.
 ㄹ. 심 선생님은 세 살 된 따님이 계십니다.
 ㅁ. 아버지, 저희 나라도 이제는 좋아졌지요?

[2점]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8. <보기>의 ㉠~㉢을 언어 예절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 선생님, ㉠절 받으세요. (절을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 : 자네도 새해 복 많이 받게. 또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늘 유의하게.
 학생 :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 어머니도 안부 전해 달라고 했어요.
 교수 : 그래, 고맙네.
 학생 : 그럼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2점]

- ① ㉠ : '절 받으세요.'는 명령형 말투이므로 윗사람에게 쓰면 예의에 어긋난다.
 ② ㉡ : 세배 자체가 인사이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③ ㉢ : '감사합니다.'는 '감사드립니다.'로 고쳐 써야 언어 예절에 맞는다.
 ④ ㉣ : 선생님께 어머니의 말을 전할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안부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처럼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
 ⑤ ㉤ : '수고하십시오.'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쓰면 예의에 어긋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49.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종업원 : 손님, ㉠발이 정말 예쁘세요.
 손님 : 그래요? ㉡고맙워요.
 종업원 : ㉢이 신발이 손님께 잘 어울리겠어요.
 손님 : 정말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종업원 : 발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 : 240mm요.
 종업원 : (한참 찾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그 크기의 상품은 다 떨어지셨네요.

[2점]

- ① ㉠ : 서술어에 '-세요'를 썼으므로 주어에 '께서'를 붙여야 한다.
 ② ㉡ :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③ ㉢ : 객체인 '손님께'를 높이기 위해 '-시-'를 써야만 한다.
 ④ ㉣ : 대화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요'를 빼야 한다.
 ⑤ ㉤ :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분석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답하는?

보
기

담화의 의미는 언어 표현 그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교사가 지각을 한 학생에게 "지금 몇 시야?"라고 말할 때, 학생이 "9시 30분요."라고 대답한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점]

- ① 부장 : (대리의 발표를 듣고 화난 표정으로) 자네 회사 다니기 싫은가?
 대리 :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② 남편 : (출근하려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며) 밖에 비가 오네요.
 아내 : 여기 우산요.
 ③ 교사 : (창문이 닫힌 교실에 들어오며) 애들아 교실이 너무 덥지 않니?
 학생 : (일어나며) 제가 창문을 좀 열게요.
 ④ 관광객 : (손에 지도를 들고) 저어, 여기서 경복궁까지 가는 길은 아세요?
 행인 : 네, 지금 경복궁의 봄 경치가 멋있으니 가 보세요.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⑤ 이 형사 : 반장님, 문이 바깥쪽에서 잠겨 있는데, 범인이 어떻게 도주했을까요?
 김 반장 : (범죄 현장을 살펴보며) 이 형사, 여기 창문이 열려 있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1. 다음 (ㄱ)~(ㅁ)의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A : 너, 배 고프지 않니? B : 아니, 별로 안 고프네.
 (ㄴ) A : 너, 배 고프지 않니? B : 아직도 밥 안 먹었어?
 (ㄷ) A : 너, 배 고프지 않니? B : 그건 갑자기 왜 물어?
 (ㄹ) A : 너, 배 고프지 않니? B : 밥이나 먹으러 갈까?
 (ㅁ) A : 너, 배 고프지 않니? B : 아직 밥 먹을 시간 안 됐는데.

[2점]

- ① 동일한 표현이라도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② 질문을 할 때 부정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에 혼동이 일어난다.
 ③ 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 ④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몸짓,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2. <보기>의 대화에 사용된 호칭어와 지칭어를 바탕으로 A~E 사이의 관계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 (초인종 소리를 듣고) 여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오신 것 같은데 나가 봐요.
 B : (현관 쪽으로 나가며)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생신이라도 있으니 만나지, 이러다가 얼굴도 잊어버리겠어요.
 C : 그래, 그렇구나. 별일 없었고? 제수씨도 잘 지냈어요?
 A : 예, 아주버님도 안녕하셨어요? (옆에 있는 D의 가방을 받으며) 형님, 회사에서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제가 음식 준비 거의 다 해 뒀어요.
 D : 동서*, 늦게 와서 미안해. 일찍 와서 좀 도와줘야 했는데.
 A : 아니에요, 형님. 별 말씀을요.
 E : (방에서 나오며) 다들 왔구나. 늦어서 걱정했다.
 C : 차가 밀려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D : (선물을 건네며) 어머니, 저희 넷이 조금씩 걸어서 준비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E : 그래, 다들 고맙다.
 *동서 : 남편 아우의 아내를 부르는 말.

- ① A와 B는 부부 사이야.
 ② B는 E의 아들이야.
 ③ C는 B의 형이야.
 ④ D는 A의 순위 시누이야.
 ⑤ D는 E의 며느리야.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3.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5번
 문항코드 : 13-38-10-215

54.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②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④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⑤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6. <보기>의 '이중 피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被動文)이라 하는데, 피동사는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되다', '-어지다', '-게 되다'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중 피동은 이러한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데, 어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그의 말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② 그 길은 소나무 숲에 가려져 있었다.
 ③ 그곳에서는 고기가 정말 잘 잡혀진다.
 ④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⑤ 그 일 이후 그녀가 매우 가련하게 보여졌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자동사 파악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7. 다음 대화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 과장’과 ‘김 과장’은 고등학교 선배 사이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황 1] 식당에서 김 과장 : 승진 축하해. 지금 속도라면 자네가 나보다 빨리 부장이 되겠어. 박 과장 : 아이, 선배님도. 이번엔 운이 좋아서 된 거지 항상 이렇겠어요? 김 과장 : 그나저나 한턱 근사하게 내야지. 박 과장 : 그럼요. 저도 기분 한번 내야지요. [상황 2] 회의실에서 최 사장 : 늦어서 미안하네요. 어서 시작하지요. 김 과장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이번 시장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박 과장 : 영업부의 박○○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도 화면 조정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 네, 신호를 보내시면 제가 여기에서 스위치를 작동하겠습니다.
--

[2점]

- ① [상황 1]과 [상황 2]를 비교하여 볼 때, 상황의 차이가 동일 인물에 대한 호칭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상황 1]과 [상황 2]를 비교하여 볼 때, 높임 표현은 화자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③ [상황 1]의 ‘자네’와 ‘선배’라는 호칭을 통해, ‘김 과장’과 ‘박 과장’ 사이에 연령이나 경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상황 2]에서는 ‘김 과장’과 ‘박 과장’의 직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간 동등한 수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황 1]과 [상황 2]에서 ‘박 과장’과 ‘최 사장’이 사용한 높임 표현은 대화 참여자에 대한 친밀감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8. 다음은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과제	국어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원래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문장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탐구할 문장	ㄱ.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시끄러워 공부 안 되네. ㄴ. (야외 활동 중 친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네. ㄷ.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김 대리는 안 추워? ㄹ.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ㅁ. (몹시 무더운 날 후배에게) 야, 정말 목이 타는구나!

[2점]

- ① ㄱ의 문장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는 명령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② ㄴ의 경우, 청자가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청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 ③ ㄷ의 문장을 “김 대리, 에어컨 좀 꺼 줘.”로 바꾼다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ㄹ의 경우, 청자가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 ⑤ ㅁ의 경우, 청자가 화자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다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문장 종결 표현 파악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5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예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말에서 능동문(能動文)은 대개 피동문(被動文)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u>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쓰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u>.
보 기 ㄱ. 한술이는 욕을 먹었다. ㄴ. 민석이는 동생을 안았다. ㄷ. 지현이가 승찬이를 잡았다. ㄹ. 동훈이가 고기 맛을 보았다.

[2점]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자동사 파악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0. <보기>에 나타난 시간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a.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b.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나) a.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린다. b.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렸다. (다) a. 건희는 서울에 <u>가다가</u> 왔다. b. 건희는 서울에 <u>갔다</u>가 왔다. (라) a. 민지는 지금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b. 민지는 내일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2점]

- ① (가): a의 ‘-은’은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고, b의 ‘-는’은 현재의 시제를 나타낸다.
- ② (나): a의 ‘-는’과 b의 ‘-는’은 모두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 ③ (다): a의 ‘가다가’와 b의 ‘갔다가’는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나타낸다.
- ④ (다): a의 ‘가다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단한 것을 b의 ‘갔다가’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⑤ (라): a와 b의 ‘-겠-’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시제 표현 파악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1. <보기>의 대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 [2점]
- ① A에서 화자는 행위의 주체가 청자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② A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보이는데.
 - ③ B에서 화자는 행위의 주체를 존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군.
 - ④ B는 특수 어휘를 통해 행위의 대상을 높이고 있군.
 - ⑤ B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군.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높임 표현 파악
출처 : 2013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오늘 문법 시간에는 '피동'과 '사동'에 대해 학습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피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1. ㉠ **짧은 피동문**: '-이-, -히-, -리-, -기-'의 접미사를 통해 형성됨.
예)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잡 + 히 + 었다)
2. ㉡ **긴 피동문**: 주로 '-어지다, -게 되다'를 통해 형성됨.
예)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밝히 + 어지다)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1. ㉢ **짧은 사동문**: '-이-, -히-, -리-, -기-, -우-, -구-, -추-'의 접미사를 통해 형성됨.
예)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입 + 히 + 었다)
2. ㉣ **긴 사동문**: 주로 '-시키다, -게 하다'를 통해 형성됨.
예) 아버지가 철수에게 짐을 **지게 하였다**. (지 + 게 하였다)
* 사동문은 때에 따라 ㉢ 접미사 '-이우-'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아이를 **재우다**. (자 + 이우 → 재우다)

- [2점]
- ① ㉠: 멀리서 기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 ② ㉡: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 ③ ㉢: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셨다**.
 - ④ ㉣: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녹게 했다**.
 - ⑤ ㉢: 철수는 시험 공부 때문에 하얗게 밤을 **새웠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어휘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3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A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3. 다음의 ㉠~㉣은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들이다.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점에서>
점원: ㉠ **좋은 아침입니다**. 뭐 드릴까요?
손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점원: (잠시 후) ㉡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손님: 아, 여기 500ml 텀블러도 판매하나요?
점원: 죄송합니다. ㉢ **손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품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민 대리: 부장님, 전 오늘 아버지 생신이셔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고 부장: 아, 그래. 자네 아버님 뵈 지도 오래되었네. ㉣ **아버님께 건강하시라고 꼭 전해 주게**.
민 대리: 네, 알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2점]
- ① ㉠ 영어의 'Good morning.'을 그대로 번역한 인사말이므로 지양해야 하는 표현이다.
 - ② ㉡ '커피'는 청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③ ㉢ '께서'와 '-시-'를 함께 쓰는 것은 과잉 높임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 형용사 '건강하다'에 명령형 어미를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 ⑤ ㉤ '수고하다'라는 말은 '고생하다'의 뜻이 있으므로윗사람에게 쓰기 적절하지 않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언어 예절의 적절성 평가
출처 : 2013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B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4. 다음은 호칭어를 잘못 사용한 예이다. 이를 수정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정에서
아내 : 오빠, 우리 주말에 뭐 할까요?
남편 : 이번 주말에 **선친** 환갑 잔치가 있어서 우리 형제들 다 모이기로 했잖아.

•웃 가게에서
점원 : 어서오세요. **언니**, 뭐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중학생 : **어머님** 생신 선물할 게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요?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 : **이모**, 밥 좀 더 주세요.
조리사 : 그래, 식판을 좀 더 가까이 대렴.

- [2점]
- ① '오빠'는 남편에 대한 호칭어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여보'로 수정한다.
 - ② '선친'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므로 '춘부장'으로 수정한다.
 - ③ '언니'는 중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손님'으로 수정한다.
 - ④ '어머님'은 남의 부모님을 높여 말할 때 쓰이므로 '어머니'로 수정한다.
 - ⑤ '이모'는 친족 간에 쓰는 호칭어이므로 '조리사님'으로 수정한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B형 > 문법, 어휘 > 효과적인 담화 > 호칭어와 지칭어 평가
출처 : 2013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국어B
문항코드 : 제공되지 않는 문항입니다.

6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3점]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었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 문법 요소 >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출처 : 2014>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3번
문항코드 : 14-37-30-213

66.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 학습 Q&A

질문

학생

오늘 문법 시간에 부정문에 대해 배웠는데,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고,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상대 부정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 부정은 ‘못,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대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화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긴 부정문인 경우, 명령문에서는 ‘마/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말자’를 사용합니다.

<보기>

문법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2점]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대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분류 : 수능 > 국어영역 > 국어 A형 > 문법 > 문법 요소 > 부정 표현 파악
출처 : 2014>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2번
문항코드 : 14-37-40-212